

【논문】

실증 과학(la science positive)의 실증성(positivité)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해

조 현 수*

【주제분류】 과학철학, 존재론

【주요어】 실증과학의 실증성(positivity), 과학의 공간화하는 사유, 실제의 적극적(positive) 운동, 실제의 부정적 혹은 퇴역적(negative) 운동, 형이상학

【요약문】 베르그손에 따르면, 과학적 사유 혹은 지성적 사유는, 본질적으로, 그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대상을 **공간화**하는 사유다. 그의 이런 주장은 아마도 철학하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꽤나 유명한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는지, 또한 이 주장을 과연 참된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이 소문난 주장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들을 묻고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찾은 대답을 제시하였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이고 어떠한가 하는가?, 또한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탐구야말로 베르그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실증과학의 <실증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그의 생각을 검토해봄으로써만 비로소 올바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저 중요한 물음에 올바르게 다가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

I. 과학적 인식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베르그손의 독특한 이해

하나의 선언을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보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르그손 철학의 견지에서 보자면, 실증과학(la science positive)은 실재(혹은 세계)에 대한 절대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실증과학은 실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인식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상징을 매개로 하여 실재를 굴절시켜서(infléchir) 파악하는 상징적 인식(connaissance symbolique)에 머무는 것이다.¹⁾

-
- 1) 그러므로, 과학적 인식이, 즉 지성적 인식이,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르그손이 긍정한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칸트에서 지성의 형식이 인식의 상대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듯이 베르그손에서 지성과 공간의 실용적 기원은 과학적 인식의 자의성과 상대성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적 필요성에 따라 실재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지성과 그 도식인 공간은 완벽한 인위적 조작의 도구들로 보인다. 인식은 행동에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반대이다. 베르그손은 과학적 인식의 객관성과 절대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우리의 행동은 외부 사물에서 삶의 필요들(besoins, 욕구)을 반영하는 대상에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향하지만 그 대상들 자체는 실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즉 그것들 자체는 절대(l'absolu)에 속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에 덧씌우는 공간적 형식은 대상의 존재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황수영, 『칸트와 베르그손의 인식론 비교』, 『철학사상』 제 21호, 2005년 12월.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성격에 대한 베르그손의 생각이 이 글이 제시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의 저자가 “그 근거는 이러하다”라는 문장 이하에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주장의 의미에 대해 너무 성급한 해석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는 결코 베르그손에게서 실증과학의 상징적 인식이 실재의 실제 구조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한낱 주관적 도식의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베르그손 철학의 함의는 과학적 인식이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이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이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생각이 <과학이 세계에 대해 발견하는 것이 곧 세계의 진리이고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적 실재론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주장을 곧 베르그손이 과학을, 주관적 경험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²⁾ 실재의 구조와는 전연 관계없는, 혹은 실재의 구조와 어떤 관계에 있을지 전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 한낱 가설적인 주관적 구성물(construction subjective)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베르그손이 과학을, 마치 칸트가 그러하듯이, <우리에 대한 대상Ding für uns>에 대해서는—즉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해서는—완벽하게 참된 객관적 인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대상에 대한 이러한 참된 객관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그 자체로 있는 대상Ding an sich>에 대해서는—즉 ‘물자체’로서의 대상에 대해서는—아무런 적극적인 인식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베르그손은, 과학에 대한 협약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conventionnaliste)처럼, 혹은 세계 인식의 방식에 대한 다원론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사

서 과학적 지식이 실재 자체에 일치하는 절대적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저자에 따르면, 베르그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근거—, 이 근거는 우리가 보기에 엄밀한 논증을 제시하는 철학적 근거라기보다는 한갓 편리하기만 한 안이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베르그손 자신은 이런 근거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과학적 지식의 절대성을 입증하는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2) 흄Hume을 생각하라.

람들처럼,³⁾ 실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학 이론이 예술적 표현이나 형이상학적 사변과 같은 여타의 인식활동들에 비해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는—즉 이들과 그 인식적 가치(valeur de connaissance)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한—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베르그손이 볼 때, 우리 밖에 실재하는 물질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한, 과학은 이들 여러 다양한 인식활동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과학은 다른 모든 그 밖의 인식활동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게 물질에 대해 참되게 인식한다. 과학적 인식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이들 철학적 입장들에 *견주어 볼 때*, 베르그손의 철학은,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과학이 단순히 우리 인간 주관에만 고유한 표상방식을 (월권적으로) *객관화(objectiver)*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관 밖에 있는 실재 자체에 속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철학이다. 요컨대, 과학적 인식을 우리 밖에 있는 실재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관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념적(혹은 관념적) 표상représentation idéale으로 생각하는 관념론과, 이에 반대하여 과학적 인식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대적 인식이라고 주장하는 실재론, —이런 ‘실재적(réel)’이니 ‘관념적(idéal)’이니 하는 술어들은 과학적 인식이 갖는 성격과 가치에 대한 베르그손의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험령하거나 혹은 너무 경직된 개념들이다. 과학이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아니라고 베르그손이 주장하게 된 것은 저런 ‘관념론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 베르그손은, 과학이 발견하는 것은 한갓 우리의 주관적 표상임을 넘어 우리 밖에 있는 실재 자체에로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분명히 실재론자의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리 밖의 참된 실재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과학적 인식의 *상징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 역시 잊지 않는다. 베르그손에게 이런 절묘한 입장을 갖게 해준 것,

3) 이런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굤맨Goodman(넬슨Nels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김희정, 『굤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p.5.

즉 그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과학이 세계에 대해 발견하는 것이 곧 세계의 진리이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과학적 실재론자가 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인식의 실재성(réalité)을—즉 과학적 인식은 실재 자체에 속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에 대한 관념론적인 이해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과학의 상징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과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방법의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게 해준 것, 그것은 ‘실증과학(la science positive)’의 ‘실증성(positivité)’에 대한 그의 이해이다. 실증과학의 ‘실증성’은 과연 어떻게 성립하는가? 우리는 베르그손이 ‘실재적이냐 혹은 관념적이냐’하는 낡고 익숙한 한 쌍의 술어 짝 대신에 전혀 새로운 한 쌍의 서로 대립하는 술어 짝을 통해 실증과학의 ‘실증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글의 제일 첫머리에서 내세운 선언과 그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설명, 이것들을 실증과학의 실증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정당화하는 일에 착수해보자.

II. 과학적 사고는 모든 것을 공간화하는(spatialiser) 사유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내세우고 싶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과학적 사유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un espace homogène)을 구체적인 사물들의 아래에 그들의 바탕으로 펼쳐놓는다. 베르그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구체적 연장인 감각적 성질들의 연속성 아래에 무한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죄었다 폄다할 수 있는 하나의 그물망을 펼쳐 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에 의해 만들어져 저 구체적인 감각적 성질들 아

래에 놓이게 된 이 기체(ce substrat simplement conçu), 임의적이고 무한한 분할가능성을 상징하는 이 완전히 이념적일 뿐인(tout idéal) 도식, 이것이 바로 동질적 공간이다.”⁴⁾ 어떻게 해서 베르그손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 주장의 참뜻은 과연 무엇일까?

실증과학의 목표는 <자연의 법칙들>을 수립하는 것일 게다. 다시 말해, 실증과학에 의해 표상되는 세계는, 한 마디로, <항구적인 법칙들의 체계>일 것이다. 실증과학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것은 항구적인 법칙들의 지배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증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들을 수립해나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동질적 공간을 구체적인 사물들의 아래에 바탕으로 놓는 것이 과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위의 명제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대관절, 법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 (혹은 상태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일 것이다. 즉 그것은 어느 일정한 원인이 주어지면 이에 상응하여 어느 일정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 이어지도록 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게다. 따라서 우리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아직 경험에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하나의 법칙이 갖는 타당성은 이 법칙을 기반으

4)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Œuvres, édition du centenaire*, p.344 (pp235-236)
 - 처음의 쪽번호는 ‘백주년 기념 전집판의 쪽번호를, 괄호 안에 든 쪽번호는 개별적으로 출판된 책에 따른 쪽번호를 가리킨다 (앞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쪽번호를 병기하겠다). 『물질과 기억』에 대해 최근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다소 의역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새롭게 번역하게 되었다. 중요한 구절이므로 불어원문을 병기해둔다: “...Nous devons...tendre au-dessous de la continuité des qualités sensibles, qui est l'étendue concrète, un filet aux mailles indéfiniment déformables et indéfiniment décroissantes: ce substrat simplement conçu, ce schème tout idéal de la divisibilité arbitraire et indéfinie, est l'espace homogène.”

로 해서 세워진 예측을 우리의 경험이 확인해주는 것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하나의 학문이 가진 ‘실증성(positivité)’은 이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학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더욱더 많은 필연적인 질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수록 한 학문이 가진 실증성의 정도(程度)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귀납적 추론’의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지성이 세계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법칙들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성은, 어떤 현상이 언제나 어김없이 다른 어떤 현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함에 의해서, 이 두 현상들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법칙을 수립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의 간단한 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귀납적 추론을 떠받치는 숨은 배후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을 베르그손은 우리에게 제안한다.

“가령 내가 버너 위에 냄비를 얹고 물을 끓인다고 해보자. 이러한 조작(opération)과 이 조작이 행해지는 이들 대상들은 실은 다른 많은 대상들과 또한 다른 많은 조작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solitaires) 있다: 계속 이어지는 이 연관망의 망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태양계 전체가 공간의 이 한 지점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또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라는 집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소우주를 이루는 것인 양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라는 집단이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인 소우주(un microcosme indépendant)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소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즉 시간이 얼마간 지난 뒤에는 지퍼진 열기가 필연적으로 물을 끓어오르게 할 것이라고 내가 만약 말한다면, 이는 이 계(système)의 (즉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로 구성된 집단의

—옴니가 삽입) 몇몇 요소들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걸로 이 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완전한(complet)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긍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계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완수되는 자율적인 체계로서(il se complète automatiquement),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 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버너에 불이 지펴지고, 냄비와 물이 갖추어지고, 또한 시간이 얼마간 지난다면, 나는, 어제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 계에 아직 부족한 것이, 즉 <물의 끓어오름>이라는 현상이, 내일이나 혹은, 그 때가 언제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지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⁵⁾

귀납적 추론은 우리에게 ‘어제의 <물-냄비-불 지펴진 버너>’라는 계에서 일어난 현상, 즉 <물의 끓어오름>이라는 현상이 ‘오늘의 <물-냄비-불 지펴진 버너>’라는 계에서도 역시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오늘의 <물-냄비-불 지펴진 버너>’라는 계는 ‘어제의 <물-냄비-불 지펴진 버너>’라는 계와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계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물-냄비-불 지펴진 버너>라는 계와 불가분적인 연관을 맺으면서(solidaire)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세계—이 환경세계는 원칙상 우주 전체까지 포괄하는 것이다—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즉 이 환경세계가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겪는 변화가, 저 두 계를 서로 구분되는 다른 계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저 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의 이 계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리라고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⁶⁾ 이에 대해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오늘 가열되는 버너 위에 얹혀진 물이, 어제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끓어오를 것이라고, 또한 이것이 절대 필연적으로 그럴 것이

5) Bergson, 『창조적 진화』, p.677(pp.215-216).『창조적 진화』에 대해서도 역시 최근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베르그손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말로 보다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의역하였다.

6) 이것은 흠이 제기한 유명한 물음이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다면, 이는 내가 막연하게 나의 상상력(imagination)으로 오늘의 버너를 어제의 버너 위에, 오늘의 냄비를 어제의 냄비 위에, 오늘의 물을 어제의 물 위에, 오늘의 흐르는 시간을 어제의 흐르는 시간 위에, 옮겨놓아(transporter...sur...) 보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베르그손의 지적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실로, 귀납적 추론의 확실성이란, 즉 ‘어제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에서도 어김없이 물이 끓어오르리라는 우리들의 확신이란, 오늘의 이 계를 어제의 저 계 위로 옮겨놓아 보아 이들이 서로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할(coïncider) 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타의 모든 점에 있어서 이 두 계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기에, <물이 끓어오름>이란 현상에 대해서도 이 계들이 서로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즉 오늘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물이 끓어오름>이란 현상도, 어제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반드시 일어나 오늘의 이 계를 완성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납적 추론의 논리는 사물들 사이의 완전한 일치(합동)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오늘의 이 계를 어제의 저 계 위에다 옮겨놓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옮김을 통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저 계가 오늘의 이 계를 기다려야만 하고,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지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대해 동시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⁸⁾라고 베르그손은 말한다. 오늘의 이 계가 어제의 저 계에 대해 동시적이 되는 것-이 것을 필요로 하는 귀납적 추론은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이 사물들에 대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어떤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귀납적 추론은 우선 시간의 비가역성(非可逆

7) 베르그손, 같은 책, p.678(p.216).

8) 베르그손, 같은 곳. 그리고 이 말에 바로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바로 기하학에서, 아니 오직 기하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性)에 대해 어떤 심각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⁹⁾ 따라서 귀납적 추론은 어제의 저 계와 오늘의 이 계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적 거리를 무시하고 이 둘을 마치 공간 속에 있는 두 사물들처럼 다루게 된다: 실로, 서로 구분되는 두 사물이(즉, 지금의 경우에는 ‘오늘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와 ‘어제의 <물-냄비-불 지퍼진 버너>’의 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같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 서로 떨어져 존재할 때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귀납적 추론의 기반이 되는 저 ‘합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적인 조건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제 공간 속의 두 사물들처럼 있게 된 이 두 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계는, 그것이 어제의 저 계에게로 옮겨가는 동안, 달라져서는(변화해서는) 안된다: 즉 오늘의 이 계를 어제의 저 계가 있는 지점(point spatial)까지 옮겨가는 장소 이동은 오늘의 이 계가 가진 내용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옮겨지는 것의 내용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장소 이동을 통해, 이 두 계가 그들의 서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오늘의 이 계가 어제의 저 계가 있는 지점까지 장소 이동을 하는 동안 달라진다면, 설령 어제의 저 계가 있는 지점에서 오늘의 이 계와 어제의 저 계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계는 이 지점까지 오는 동안 이미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는 어제의 저 계에서 일어난 일을 미루어 오늘의 이 계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간 속에서의 장소 이동이 어떤 사물의 내용에 아무런 변질도 가져오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은 오직 그 공간이 완전히 동질적인 공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그 부분들이 서로 이질적인(hétérogène) 공간이라면, 한 사물은 그것

9) “귀납적 추론은 그러므로…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L’induction implique donc que…le temps ne compte pas)” – 같은 곳.

이 이 공간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즉 그것의 장소 이동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납적 추론이 자신의 논리를 적용하는 대상들 아래에 놓는 공간, 그것은 하나의 동질적 공간이다. 과학적 인식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형태(une forme spatiale)를 가졌다고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이유, 즉 우리 지성이 귀납적 추론을 통해 과학적 법칙들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고려하는 모든 대상들 아래에 하나의 동질적 공간을 놓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과학적 사유의 공간적 형태는 그가 고려하는 모든 대상들 아래에 이렇게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을 펼쳐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들>을 수립하기 위한 귀납적 추론의 기반은 대상들이 서로 완전하게 겹쳐지는 ‘합동’이고 이 합동은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런 합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들 아래에 하나의 동질적 공간을 놓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합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동을 이루는 대상들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직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실로 가장 완전하게 합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란 대상들이 순전히 양적인 규정만을 가진 경우일 것이다.¹⁰⁾ 우리가 완전한 합동의 사례를 주로 수학적 대상들, 즉 기하학적 도형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은 양적 규정 외에도 질적 규정들 또한 가진 것들이다. 물론 귀납적 추론은 순전히 양적 규정들만을 가진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질적 규정들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들 또한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¹¹⁾ “하지만 두 개의 질이 서로 일치한다는

10) “귀납적 추론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려되는 소우주(microcosme)가 오직 양적 크기(des grandeurs)만을 포함할 때이다.”—같은 책, p.677(p.p.216).

11) “귀납적 추론은 질들도, 양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겹쳐질 수 있다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들을 서로 겹쳐봄으로써 그들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¹²⁾ 양적 규정들만을 가진 대상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저 합동의 논리를 질적 규정들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들에게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질적 규정들이 실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양적 규정들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질이란 실은 어떤 순전히 양적인 규정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표현(manifestation apparente)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들에게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질들은, 즉 이들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의 질적 차이는, 어떤 양적인 관계들로, 즉 그들 사이의 어떤 순전히 양적인 차이로 환원될 것이다. 그리하여, 양적인 규정만을 가진 것들이 서로 겹쳐질 수 있고 그들 사이의 양적인 차이가 정확히 측정되고 계산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것들 역시 서로 겹쳐질 수 있고 그들 사이의 차이가 정확히 측정되고 계산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리라. 요컨대, 구체적인 대상들의 질적 규정들이 더욱더 잘 어떤 양적 규정들로 환원될수록, 그들에게 적용되는 귀납적 추론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 되어간다. 즉 귀납적 추론은 자신의 확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들의 본질이 오직 양적인 규정들만을 가진 어떤 연장적인(étendu) 것이 될 것을, 즉 오직 공간적인 규정만을 가진 어떤 기하학적 형태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귀납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법칙들>

는 것을 함축한다.”- 같은 책, p.678(p.217).

12) 같은 곳.

13) “순전히 공간적인 규정들(de pures déterminations spatiales)만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추론할 때 내가 가장 완벽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경우들에 대해 추론할 때에도 이들 다른 경우들이 저 이상적인 경우(ce cas limite)에 점점 더 근접할수록 나의 추론은 점점 더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저 이상적인 경우가 다른 모든 경우들을 내에서 ... 비쳐 드러나 보이는(transparaît à travers tous les autres) 것이 아닐까?”- 같은 책, p.677(p.216).

을 얻는 우리 지성의 과학적 사유는 “마치 질들의 배후에서 어떤 기하학적 메카니즘(un mécanisme géométrique) 비쳐 드러나는 것을 보는 양, 이 질들을 양들로 동화시키는 것이다(assimiler les qualités aux quantités).”¹⁴⁾

그러므로 과학적 사유는 비단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을 그것이 고려하는 모든 대상들의 아래에 펼쳐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이 대상들을 그것들의 아래에 놓인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는(assimiler) 데까지 나아간다. 과학적 사유의 눈 앞에 구체적인 대상들은 그들을 밀받침하는(sous-tendre) 공간과 마찬가지로—즉 각각의 개별적인 구체적 대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각 부분들과 마찬가지로—서로 완전히 동질적인, 기하학적 형상들(figures géométriques)로 드러나는 것이다. 과학적 사유의 확실성은, 즉 과학적 인식이 대상을 적합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질적인 차이들을 그들을 밀받침하고 있는 공간의 동질성 속으로 용해시키는(fondre) 것에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한다.”¹⁵⁾ ‘우리 지성의 과학적 사유는 모든 것을 공간화(spatialiser)한다’라는 베르그손의 주장,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 된 이 주장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과학적 법칙들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즉 모든 개별적인 대상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 것일까? 그것은 과학적 법칙들을 보편자들(universels)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같은 유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어떤 보편자의 개별적인 사례들(exemplification particulière)로, 즉 이 보편자의 개별적인 화현체(化現體, incarnation particulière)들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법칙은, 그것이 보편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들 보편자

14) 같은 책, p.678(p.217).

15) 같은 책, p.679(p.218).

들의 개별적인 화현체들인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의 관계 역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보편자들이 개별적인 구체적 대상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들(réalités)인지 혹은 그저 한갓 이념적 추상물(abstractions idéales)에 지나지 않는지, 또는 그들이 대상들에 앞서 존재하는지(universalia ante rem) 그렇지 않으면 대상들 내에서만 존재하는지(universalia in rebus)–이 오래되고 말 많은 철학적 문제에 대해 지금 이 글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보편자들의 실재성이 긍정되고 보편자들과 구체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후자들이 전자들의 개별적 화현체들로 이해될 경우에만, 과학적 법칙들이 자부하는 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타당성은 가장 강력하게 긍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편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것을 공간화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는, 즉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을 구체적인 대상들의 아래에 놓고 이들을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동화시켜 나가려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부터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서로 다른 시간상의 또 공간상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대상들이 서로 완전히 겹쳐져서 하나의 대상으로 합일(일치)할 수 있다면–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의 경우, 그들이 오직 양적인 규정만을 가진 기하학적 형태들로 완전히 환원될 때에만, 그들 사이에는 이러한 완전한 일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 후자의 하나의 대상은 저 여러 개의 개별적인 대상들의 존재 무대가 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¹⁷⁾ 즉, 저 여러 개의 개별적인 대상들이, 그들이 각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상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완벽하게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즉 그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

16)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시사해주신 것은 박흥규 선생이시다. 그의 『박흥규 전집 2, 형이상학 강의 1』, p505를 참조하라.

17) 위와 같은 곳을 참조하라.

의 규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존재(une existence autonome)를 누리는 어떤 것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개별적인 화현체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존재를 누리는 이 어떤 것은 하나의 보편자가 되고, 이들 보편자들 사이의 관계는 (이들 보편자들의 개별적 화현체들인) 모든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걸쳐 타당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편자들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해, 과학적 법칙들의 보편적인 타당성을 믿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눈에는 구체적 대상들과 구체적 사실들이란 그의 법칙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실재성을 갖는 것이 된다. 그의 눈에는 구체적 대상들과 구체적 사실들이란, 그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편적 법칙들의 복잡한 조합(combinaison)에 의해 완전히 구성될 수 있는(composable)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과학적 사고방식의 눈에게는 우리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저 다채로운 질들로 채색된) 구체적 대상과 구체적 사실들보다는 오히려 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쪼개고 분해하는 분석을 통해 찾게 될 저 법칙들이 더 참된 실재로 보이는 것이다: 경험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저것들은 이들 법칙들이 기본인자(éléments fondamentaux)가 되어 구성되는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것들일 뿐이며, 따라서 참된 실재를 찾기 위해서는 오로지 쪼개지고 분해되어야만 될 피상적인 껍데기들과 같은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지성(intelligence)은, 또 이 지성의 과학적 사유는, 자신에게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intelligible) 것을—즉 과학적 법칙들을—그렇지 못한 것보다—즉 경험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 대상들(서로 이질적인 질들)보다—더 참된 실재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 밖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점점 더 이렇게 공간화될수록, 즉 이들 구체적인 대상들이 그들 아래에 놓이는

저 하나의 동질적 공간에 점점 더 동화될수록, 우리의 지성은, 그에 비례하여, 점점 더 자율적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대상들이 점점 더 공간화될수록, 우리의 지성은 경험에 의해 굳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도 외부세계에 대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점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 공간의 속성들(propriétés)이 무엇인지를 선험적으로(apriori) 연역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지성이 선험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는 기하학의 법칙들은 바로 공간적인 것들의 존재방식을 밝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¹⁸⁾ 공간 속에서 생각 가능한(imaginable) 그 어떤 기하학적 형태들(figures)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성은 그들에 내재하는 속성들이 무엇이며, 그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서도 충분히 완전하게 알 수 있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혹은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에 대해 우리의 지성이 선험적으로 연역해낸 기하학적 법칙들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완전히 공간화된다면, 우리의 지성이 선험적으로 연역해낸 기하학적 법칙들은 세계의 모든 일을 그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리라. 물론 외부 대상들에 대한 앎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외부 대상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경험을 통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충분한 경험만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공간화되는 한, 외부 대상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 더 이상 굳이 경험에 계속해서 의존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외부 대상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외부로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작을 위해 필요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의 지성은

18) “기하학은 공간의 속성들을…선험적으로 규정하는 학문이다”-칸트,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감성론』중의 ‘§ 3 공간개념에 대한 초월적 해설’에서 인용, 백중현 역, 대우고전총서 아카넷, 2006, p.246.

외부 대상들의 속성이 어떠할지를 *자율적으로*, 즉 *선험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외부 대상들에 대한 차후의 실제적 경험은 우리의 지성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선험적으로* 추론해낸 것들이 언제나 옳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어김없이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이리라. 이리 하여, 우리의 지성이 오직 자기 자신만의 힘에 따라 필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는 기하학적 법칙들—이러한 법칙들은 한낱 우리 주관의 정신에게만 타당한 법칙임을 넘어서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세계의 모든 구체적인 사실들의 전개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들>이 될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은, 결국 우리의 지성이 선험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는 기하학의 법칙들에 따라,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리라: 장차 세계에 일어날 모든 미래의 사건들은, 마치 기하학의 정리들이 그 전제들에 의해 미리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듯이, 또한 그리하여 이 전제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연역되어 나오듯이,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 미리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게 되며 또한 그리하여 이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연역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베르그손이 볼 때, 과학적 사유가 표방하는 실증성(positivité)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간화>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과학적 사유의 실증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동일한 것이 그대로 반복되리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에 기초한 법칙의 수립, 이러한 법칙에 대한 반복되는 동일한 경험을 통한 확인, 이렇게 검증된 법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리라는 믿음, 즉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 세계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진행되리라는 믿음, 결국 이런 법칙들은 우리의 지성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 *자율적으로*, 즉 *선험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는 수학적 법칙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지성은 이러한 선험적인 수학적 법칙들에 의해 세계의 참 모습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공간화될 수 있다>는 거대한 암묵적인 근본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

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성은 세계에 대한 그의 과학적 인식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 기하학으로부터 출발하였다가 결국 다시 최종적으로 기하학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것의 반복이 있다고 믿는 점에서 우리의 지성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동질적 공간을 구체적인 대상들 아래에 놓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구체적 대상들을 (즉 그들의 다채로운 질들을) 서로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양적인 규정만을 가진)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들로 환원시키고 있다: 실로, 동일한 것의 반복을 찾지 못한다면, 대상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재인식(식별: *récognition*)도, 따라서 그 어떤 개념적 포착도, 결국 그 어떤 지성적 인식도, 가능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지성은 보편자를 통해 개별자를 인식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편자의 표상은 동일한 것의 반복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것의 반복을 찾는 것은 우리 지성의 근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지성은 처음부터 본래적으로 하나의 기하학적 사고라는 것을, 즉 우리의 지성에는 본래적으로 하나의 잠재적 기하학(*une géométrie latente*)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하학은 우리의 지성의 모든 활동들에 필연적으로 선행한다 *antérieur*. (왜냐하면 이 모든 지성의 활동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 먼저 공간이 주어질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지성의 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지성에게 저 거대한 추진력을 주는 것, 우리의 지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표상에 내재하는 어떤 잠재적 기하학이다.”¹⁹⁾ 또한, 다른 한편, 세계에 대한 우리 지성의 이해는,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세계의 질서를 수학적 법칙들에 의해 명확히 표현해내는 것에 의해 자신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려한다:

19)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p.674(pp.211-212): 강조는 옮긴이가 한 것이다. 인용문 중 괄호 안에 든 문장의 원문을 여기에 밝혀두겠다: “(puisque ces opérations ... ne peuvent faire autrement que de se le <l'esapce> donner)”.

즉 세계에 대한 지성의 과학적 인식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하학적 체계인 것처럼 완전히 수식화(數式化)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의 모든 활동들은, 마치 그들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 도달하는 종착점(terme)인 양, 기하학을 추구한다.”²⁰⁾ 베르그손의 지적처럼, 기하학은 우리의 지성이 전개되어 나가는 그 최초의 시작에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의 지성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에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사유가 표방하는 <실증성positivité>의 이상(理想)은 세계를 하나의 기하학적 체계로, 즉 하나의 거대한 공간과 그 속에 든 많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들(figures), 그리고 이들 형상들의 속성들과 그들 서로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학적 법칙들로 이뤄진 것으로 표상하도록 만든다. 실로 저 실증과학적 실증성의 이상은 세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에서만 가장 완전하게 도달될 수 있으리라. 세계를 이런 식으로 표상하려는 경향은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unitaire) 이해를 추구한다고 자부하는 물리학에 있어서, 그 이론상의 다양한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줄곧 일관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물리학은 언제나 세계를 빈 공간espace vide과 그 속에서 운동하는 양적인 속성을 가진 물체들corps—이것의 고대 원자론의 원자들atomes이든 뉴턴 물리학의 물질적 덩어리masses matérielles이든—의 운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표상경향이 가장 극단적인 범(汎)기하학주의의 모습을 띠고 드러난 것은 물체의 본질을 연장(res extensa)으로 규정한, 즉 물질적 실체substance corporelle를 순전히 기하학적 규정déterminations purement géométriques들로 완전히 환원시키려 했던, 데카르트 물리학에서 일 것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러, 뉴턴

20) “Toutes les opérations de notre intelligence tendent à la géométrie, comme au terme où elles trouvent leur parfaite achèvement.”—같은 곳.

역학에서 필수적이었던 <힘>의 개념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휘어진 공간>이라는 개념을 대신 들여놓는 데 성공함으로써, 물리학은 데카르트가 꿈꾼 저 범기하학주의라는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Ⅲ. 실증 과학의 실증성(positivité)에 의해 포착되는 것은 실은 실재의 부정적(négatif) 양상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베르그손이 과학적 인식에 부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이해는 이상에서와 같이 실증과학이 표방하는 실증성이 어떻게 성립하는 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분석을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만 올바르게 얻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실재(혹은 세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자신의 거대한 하나의 흐름 안에 포괄하는 **하나의 보편적 지속** (Durée unique et universelle)이다²¹⁾—그리고 베르그손은 이 보편적 지속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과 동일시한다: 즉, 베르그손에게, 실재 자체는 곧 시간이다; 다시 말해, 시간이 실재의 유일한 원리이다²²⁾—. 이 보편적 지속은 그의 본래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결코 부분들로 나

21)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보편적 지속>이라는 이 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사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조현수, 『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와 형이상학의 과제』, 『철학』제 91집, 2007 여름, 특히 p.207—p.214 한국 철학회.

22)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전에 베르그손의 존재론을 <시간일원론>이라고 규정짓고, 베르그손적 <시간일원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다—위의 조현수의 논문의 같은 곳을 참조하라.

뉘질 수 없는 하나의 일자(une unité indivisée ou indivisible), 혹은 하나의 일자(一著)적 흐름으로서, 이 흐름을 구성하는 모든 연속적인(successif) 계기들(moments)은 서로 구분될 수 없도록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²³⁾ 실재 자체, 혹은 실재 전체(le tout de la réalité)는 그 본래적인 모습에 있어서 “불가분적인 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매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창조해내는 하나의 전진운동(une marche en avant, indivisée, à des créations qui se succèdent)”²⁴⁾인 것이다. 그렇다면, 즉 실재 자체가, 그 전체에 있어서(dans son ensemble), 그 전진운동의 매순간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연속적 창조의 과정이라면, 즉, 다시 말해, 실재 자체가 시간이라면,²⁵⁾ 과학적 사유가 모든 사물들의 존재바탕으로 놓으며, 더 나아가 모든 사물들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는(assimiler) 데까지 나아가는 공간, 그리고 과학적 사유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간화시킴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세계의 저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공간과 이 법칙들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베르그손에게 실재 자체인 보편적 지속의 흐름이 끊임없는 연속적인 창조의 과정(une continuité de créations incessantes)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에 따르면, 보편적 지속의 흐름을 이루는 연속적인(successifs) 계기들이 서로 완전히 구분됨이 없이 하나의 일자(unité)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²⁶⁾ 다시 말해, 베르그손에

23) 위의 조현수의 논문의 같은 곳을 참조하라.

24) 『창조적 진화』, 같은 책, p.679.

25) 모두들 알고 있듯이, 베르그손에게 시간의 실재성(réalité)은 <실재(le réel)가 끊임없는 연속적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6) 지속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계기들(moments successifs)이 서로 구분됨이 없이 하나의 일자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속의 흐름을 끊임없는 연속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만들어준다는 베르그손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현수의 논문을 참조하라(p.207—p.214). 이 각주에서 우리는 다만 베르그손이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논증의 핵심

따르면, 지속은 과거의 선행(先行)하는 계기가 현재의 계기 안으로 연장되어 들어옴으로써만(prolongation du passé dans le présent)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무(無)로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적인 마디만을 되풀이해 보겠다.

- 만약 연속적으로 일어나는(successif) 지속의 계기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따라서 선행(先行)하는 계기가, 후행(後行)하는 계기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계기의 도래와 더불어-이것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그저 무(無)로 사라져버린다면, 지속의 흐름이란 결코 생기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지속의 연속적인(continu) 흐름 대신에 불연속적인(discontinu) 순간들의 점적인(ponctuel) 병렬만이 있게 될 것이다. 지속의 흐름이 요구하는 연속성(continuité)은 오직 선행하는 계기가 후행하는 계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후행하는 계기와 나눌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될 때에만 가능하다-즉, 지속의 연속성은 오직 과거가 현재로부터 구분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 안에 보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이렇듯 과거가 무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 보존되어 현재와 나눌 수 없는 하나로 결합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지속의 매 계기는 또한 필연적으로 그 이전의 계기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매번 창조해내게 된다: 곧바로 잇달아 일어나는 두 연속적인 계기가(deux moments consécutifs) 외견상 서로 아무리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즉, 후행하는 계기는 선행하는 계기에는 없는 새로운 것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계기(A)는 후행하는 계기(A')의 도래와 더불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후행하는 계기(A') 안으로 보존되므로, 이 후행하는 계기(A')에는 저 선행하는 계기(A)에는 없는 <A의 보존conservation du A>이, 즉 <A의 기억mémoire du A>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의 연속적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의 현재에서의 보존la conservation du passé dans le présent>-베르그손을 이를 <과거의 현재 안에서의 자기 연장prolongation du passé dans le présent>이라고 곧잘 표현한다-, 이것이 곧 지속의 흐름을 매순간 끊임없는 연속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겨tendre** 현재와 더불어 하나로 결합되도록 만드는—그리하여 과거가 현재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도록 만드는—**지속의 긴장력(tension de la durée)**이 지속의 매순간을 끊임없는 창조의 연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계기들을 서로 나뉘질 수 없는 하나의 일자(une unité)로 결합되도록 만드는 이 지속의 긴장력이 **약화될수록—즉 이 긴장력이 이완될수록(détente de la tension)—**, 하나의 일자로 서로 구분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던 저 연속적인 계기들은 그들 사이의 본래적인 유대(紐帶:solidarité)를 잃고 점점 더 서로 **외면화되어감(s’extérioriser)**과 동시에, 또한 점점 더 서로 구분되는 것들로 되어가며, 또한 (지속의 연속하는 매 계기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창조의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 계기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저 지속의 긴장력이기 때문에,) 이 긴장력의 이완은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것들로 되어가는 연속적인 계기들을 더욱더 서로 **동질적인(homogène)** 것들이 되도록, 다시 말해, 더욱더 <같은 것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되도록 만들게 된다.²⁷⁾ 그러므로 그 부분들 사이의 완전한 **외면성(extériorité)**—그들 사이의 이러한 완전한 외면성으로 인해 이 부분들은 서로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과 철저한 **동질성(homogénéité)**으로 특징지워지는 공간,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완전히 공간화시켜서 얻어지는 과학적 법칙들—이 공간과 이 법칙들은 보편적 지속의 저 끊임없는 창조적 힘을 구성하던 본래적인 긴장력이 이완될 때 생기는 실재의 한낱 **퇴락된** 모습이다: 공간을 특징짓는 그 부분들 사이의 완전한 외면성과 동질성은 지속의 긴장력이 그 가장 극단적인 이완의 상태에 이를 때 생기는 것이다. 즉, 베르그손에 따르면, <언제나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저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과학적 법칙들과 이 법칙들이 표방하는 자연의 엄격한 필연성—이것들은 다만 실재 자체인 보편적 지속이 가진 본래적인 긴장력이 “느슨하게 되고 이완되어 그 속에서 원래 하나로 결합되어

27) 역시 위의 조현수의 논문을 참조하라 (p.208–209).

있던 것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들로 분산되어 공간화되는 것—즉 공간 속에서 서로 외면적인 것들로 되는 것—(elle n'a qu'à se distraire d'elle-même pour se détendre, à se détendre pour s'étendre)”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²⁸⁾ 따라서, 과학이 발견하는 세계의 수학적 법칙들—이들은 결코 실재를 그 본래적인 **적극적인(positif)** 모습에서 포착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실재란, 우리가 그것을 그의 본래적인 적극적(positif) 모습에서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전개의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차이를 창조해내는 하나의 불가분적인 전진운동으로서의 보편적 지속이다>이다. 과학적 법칙들이 표현하는 것—즉 과학이 세계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필연적이고 법칙적인 모습—, 그것은 다만 실재 자체인 보편적 지속이 가진 본래적인 지속의 긴장력이 **이완되고 약화되어** 생기는 **한낱 부정적(négatif)** 모습, 즉 실재의 그 본래적인 힘이 소진되어 나오는 **한낱 퇴영(退嬰)적** 모습에 불과하다. 실증과학이 표방하는 실증성(positivité)에 대응하는 것은 실재의 참된 적극적(positif)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낱 부정적(négatif)** 모습일 뿐인 것이다. “물리적 세계의 개별적인 법칙들이 표현하는 것, 그것은 이러한 순전히 부정적(tout négative) 경향일 뿐이다”.²⁹⁾ “물리학자와 기하학자의 눈에 적극적(positif) 것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참된 적극성의 한낱 어떤 중단이나 전도(顛倒)가(une interruption ou intervention de la positivité vraie) 될 것이다”.³⁰⁾

베르그손에게 과학적 인식이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³¹⁾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란 실재를 그 참된 적극적(positif) 모습에서 파악하는 인식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인식은—즉 모든 것의 존재바탕으로 하나의 동

28)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같은 책, p.679(p.218).

29) 위와 같은 곳.

30) 『창조적 진화』, p.672(p.209).

31) 이것이 우리가 이 글의 처음에 내세운 주장이었다.

질적인 공간을 놓고 또한 모든 것을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려 하는 이 인식은—실재를 그 참된 적극적인(positif)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 한낱 부정적이고(négative) 퇴영적인 모습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적 인식은 실재의 이 적극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바꿔치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과학은 공간을 모든 존재자의 제일 바탕으로 놓고 시간을 이 제일 바탕인 공간 속에 거주하는 사물들의 운동에 의해서만 비로소 표상될 수 있는 이차적인 것으로 놓는다.³²⁾ 실재의 그 적극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의 존재론적 순서를 뒤바꿔놓는 이러한 과학적 인식은 그러므로 일종의 전도(顛倒)된 사유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지속의 긴장력의 이완은 실제로는 결코 이 긴장력이 완전히 무화(無化)되는 극단적인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³³⁾ 따라서 그 부분들의 완전한 외면성과 동질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간, 즉 연속적인 계기들을 서로 나뉘이지 않도록 하나의 일자로 결합시키는 지속의 긴장력이 완전히 무화되어 생기는 공간—이런 공간은 실재에 있어서는(dans la réalité)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성의 모든 과학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러한 공간은,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 지성이 갖다 붙이는 한갓 주관적 사유원리, 즉 순전한 이념적 도식schéma tout idéal—혹

32) 시간을 공간에 비해 이차적인 것, 즉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이와 같은 생각은 고대 원자론의 세계 이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고대 원자론에 따르면, 시간은 이중으로 부차적인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우선 빈 공간과 원자들이고, 운동이란 이 원자들에 부차적으로 덧붙여진 속성이다: 시간은 원자들의 이런 부차적인 운동에 의해서 표상되므로, 따라서 시간은 이중적으로 부차적인 것이다.

33) 이러한 베르그손의 생각은 『창조적 진화』의 3장이나 『물질과 기억』의 1장과 4장의 여기저기에서 줄곧 확인될 수 있다—앞의 책에서는 특히 p.667(pp.203-204), p.671(pp.208-209)를, 뒤의 책에서는 특히 p.344-345(pp.235-237)를 참조하라.

은 상징symbole-에 지나지 않는다.³⁴⁾ 그러므로 과학적 인식이 공간을 모든 것의 존재바탕으로 놓고 또한 모든 것을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동화시켜 나가려는 한, 과학은 한갓 자신의 주관적인 도식을 월권적으로 객관화, 외화(外化)하고 있는 것이다. 베르그손이 과학적 인식이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적 인식이 모든 것을 공간화하는 데서 성립하는 한, 그것은 실재 자체를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절대적 인식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즉 공간)의 매개를 통해서만 실재를 파악하는 상징적 인식(*connaissance symbolique*)인 것이다.³⁵⁾

하지만, 과학적 인식의 본질적으로 상징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베르그손의 지적이 그로 하여금 과학적 인식을 실재 자체(*Ding an sich*)와는 상관없는 한낱 순전한 주관적 구성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실재 자체가 분명히 실제로(*réellement*) <공간화하는 경향(*la tendance vers la spatialit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 자체인 보편적 지속이 가진 본래적인 긴장력이 보편적 지속의 흐름을 구성하는 연속적 계기들을 서로 구분될 수 없도록 하나의 일자로 결합하는 것이라면-즉 보편적 지속의 본래적인 긴장력이 실재 자체를 ‘탈공간화적인 것(*extra-spatial*)’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긴장력의 이완은 하나의 불가분적인 일자로 결합되어 있던 이 연속적 계기들을, 실제로, 점점 더 서로 외면화되고 서로 구분되는 것들로, 점점 더 서로 동질적인 것들로, 요컨대, 공간화되는 것들로 만드는 것이다.³⁶⁾ 실재 자체에 실제로 내재하는 이 부정적인 경향성은 바로 우리의 지성이 실재에

34) “우리 정신이 가지는 공간 표상은...한낱 도식에 불과하다”-『창조적 진화』, 같은 책, p.667(p.203).

35) 이것 역시 우리가 이 글의 처음에 세운 주장이다.

36) 베르그손은 그러므로 “탈공간화적인 것이 뒷걸음쳐서 점점 더 공간적인 것으로 퇴화됨(*la régression de l'extra-spatial se dégradant en spatialit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창조적 진화』, p.671(p.208).

대한 과학적 인식을 얻기 위해 적용하는 저 이념적인 도식에 딱 맞 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간화하는 경향> 이, 비록 실재의 부정적 경향일망정, 실재에 실제로 속하는 실재적 (réel) 경향인 한, 우리 지성의 과학적 인식은, 한낱 주관적 구성물을 월권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실제로 속하는 실재적 경향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다.³⁷⁾ 실재 자체의 이러한 부정적 경향에 의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물질이다.³⁸⁾ 바로 이로 인해 과학의 상징적 인식은 물질에 관한 한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결론짓자. 우리는, 베르그손 철학의 견지에서 볼 때, 과학적 인식은, 그 본성상 실재의 참된 적극적 모습과 그 부정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뒤바꾸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재에 대한 참된, 혹은 절대적, 인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르그손 철학의 거의 모든 독자가 인정하리라 생각하지만, 과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입장은 눈에 쉽게 뜨일 정도로 너무 자주 양가적(ambivalent)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때론 철학적 직관은 과학이 세계에 대해 발견한 것과 일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 호의적인가 하면,³⁹⁾

37) 베르그손의 철학을 <실체의 일원론이며 경향의 이원론 un monisme de la substance et un dualisme de la tendance>이라고 규정한 장켈레비치 Jankélévitch의 유명한 말을 상기해보자—그의 책, *Henri Bergson, Quadrige / Puf*, 1959, p.174. 베르그손의 철학에 대한 이 <경향의 이원론>이라는 규정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가 말한 실재의 저 부정적 경향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실재의 적극적 경향만큼이나 역시 <실재 자체에 속하는 실재적 경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8) “물질은, 공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망정, 공간으로 향하는 운동에 의해 구성된다. 물질은 기하학에로 향해가는 도상 위에 있다(elle est sur le chemin de la géométrie)”—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p. 680(p.219).

39) “그러므로 철학은 과학에 어긋남에 없이 꼭 맞추어질 수 있어야

때론 형이상학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서부터 과학과는 다를 수 밖에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⁴⁰⁾ 과학적 인식의 객관성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는 과학이 실재의 적어도 절반에 대해서는 절대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면,⁴¹⁾ 곧장이 절반-즉 물질-에 대해서마저도 과학은 너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²⁾ 그의 이러한 왔

한다(II faut donc que la philosophie puisse se mouler sur la science). 과학에 의해 발견된 사실들이나 법칙들에 겹치는(recouvrir) 데 이르지 못하는 자칭 직관...이런 것은 진짜 직관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한갓 순전한 판타지(fantaisie pure)일 뿐이다.”-『사유와 운동』, pp.1361-1362(pp.137-138).

- 40) 베르그손은,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논하는 『창조적 진화』 3장의 앞 부분에서[pp.660-661(pp.195-196)], 철학은 객관적 사실들이 어떠한 지를 기술하는*décrire* 기본적인 차원에서부터 과학과 다르게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만약에 이런 <사실들의 기술description des faits>에 관련된 문제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은 채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순전히 과학의 소관으로만 맡겨 두려 한다면, 참된 의미에서의 철학은 결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과학이 발견하는 것을 보다 정교한 논리로 가다듬어 정당화하는 것, 즉 과학이 아직 무엇을 어설프게 말할 경우 그것을 보다 조리있고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말하는 것 정도일 것이기 때문이다-즉, 그럴 경우에,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과학으로부터 진정으로 구별될 수 있는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41) 『사유와 운동』, pp.1284-1286(pp.40-43)를 참조하라: 여기에서 베르그손은 실증과학이 물질에 대해서는 완벽한 인식에 이를 수 있으며, 물질은 실재의 진정한 한쪽 절반(moitié)이기에, 과학은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라는 형이상학의 기획을 그 반은 완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그 자신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릴 수 있으리라”-p.1286(p43).
- 42) 그러므로 베르그손은 철학에게, 필요한 경우, “(과학이 세우는) 몇몇 일반화들을 교정하고 몇몇 관찰들을 바르게 잡는 일을 할 수 있

다갠다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실재론적이냐 아니면 관념론적이냐’하는 오래된 대립쌍에 의해 이해하려 할 때에는 도무지 그 주장의 일관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모순된 행보로 보이거나 혹은 요령부득의 어쩔쩔한 타협주의적 행태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익숙한 이 분류법을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대립쌍은 “적극적positif 혹은 부정적négatif”이라는 개념짝이었다. 이 새로운 대립쌍은 베르그손이 왜 과학이 <세계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세계에 대해 발견하는 것들은 한갓 우리 정신의 주관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실재 자체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이(혹은 형이상학이) 자신을 실재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이해하는 한, 철학은 한편으로는 과학을 넘어서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진리를—즉 틀림없이 실재의 일부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이해를 가져다주는 이것을—함부로 배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과학이 인식하는 실재의 모습은 그 한낱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은 실재의 적극적인 측면만큼이나 실재 자체에 속하는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과학이 이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베르그손은 이 과제를 형이상학에게 넘기게 된다. 우리는 실증과학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저 과제, 즉 <실재에 대한 절대적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 실증과학과는 다른 형이상학이 필요하게 되는 베르그손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과학과는 다른 형이상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오직 시간이 공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할 때, 즉 과학적 사유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사물들의 공간적인 속성들일 때 뿐이고, 이와 같은 공간적인 속성들이 실은 시간의 적극적인 운동을 구성하는 지속의 긴장력이 이완되어 생기는 실

기(capable de corriger certaines généralisations et de redresser certaines observations)”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사유와 운동』, p.1362(p.138).

재의 한낱 부정적인 모습들일 때 뿐이다.⁴³⁾

참고문헌

- 박홍규, 『박홍규 전집 2, 형이상학 강의 1』, 1995
- 조현수, 『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와 형이상학의 과제』, 『철학』제 91집, 2007 여름, 한국 철학회.
- 황수영, 『칸트와 베르그손의 인식론 비교』, 『철학사상』 제 21호, 2005년 12월.
- Bergson (Henri), *Œuvres*(소위 100주년 기념 전집판), Paris, Puf, 1959.
- Jankélévitch (Vladimir), *Henri Bergson*, Quadrige / Puf, 1959.
-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대우고전총서 아카넷, 2006.

43) 우리는 다른 기회에 형이상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베르그손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ABSTRACT

Bergson's understanding of the <positivity>
of positive science

Jo, Hyun-Soo

Bergson claims that scientific thinking has a natural tendency to *spatialize* all the things that it considers. This claim would perhaps be known to almost every ones who study philosophy. But What is exactly meant by it is not clearly understood in many cases. In this work I tried to give a consistent explanation of the implication of this problematic claim. I believe that this explanation would be possible only through clarifying the profound implication of his ontology. His ontology seems to me to say that what corresponds to the <positivity> of <positive science> is not, in reality, *positive* aspect of the real world, but its mere *negative* aspect. This would be why Bergson thinks that in order to gain access to the true aspect of the real world it is necessary to make resort to metaphysics who tries to reverse the usual direction of scientific thinking.

Keywords: positivity of positive science, spatializing thinking, positive mouvement of the real, negative mouvement of the real, metaphysics.